

□ 김조년의 맑고 낮은 목소리



축하해요 : 어둠과 빛의 자리에서

‘축하해요. ○○씨!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 거기 그렇게 있음에. 아~음~~’ 이런 문자를 연발과 연초에 몇 친구들에게 보냈다. 그것을 받은 친구들은 기뻐했다. 그렇게 일상을 살고 지금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축하받을 일이고구나 생각했다면서, 그 자신을 그렇게 축하하면서 뿌듯하여 기뻐했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이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축하하고 싶다. 지난 해 12월 3일 한밤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일도 보통 때처럼 정상으로 하지 못하고, 생각이나 활동과 판단을 하는 데 몹시 불안한 가운데서 특히 주말만 되면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고 몸 놀리고 웃고 분노하고 소리 치면서 지낸 우리 시민들에게 ‘축하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선한 기운을 보낸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받은 것처럼 모두가 깜짝 놀란 가슴 쓸어내린 지 한 달, 그동안 깜짝했더라면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곤두박질 칠 나라가 슬슬 회생의 길로 접어든 지금, 꼼꼼히 자신들을 살펴보고는 ‘아, 잘 했어’ 하고 축하할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 맘이 얼마나 멋지고 뿌듯할까? 이제 곧 ‘지탈발광’ 하는 ‘미친 자식’이라는 험한 말을 그 깨끗한 입에 더 이상 담지 않아도 될 날이 온다는 기쁨이 얼마나 축하할 일일까? 최고통치자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지킬 힘이 부족하여 엉뚱하게 ‘비상계엄’이란 이름으로 정변을 일으켜 내란을 벌인 대통령을 총알보다 빠르게 모여들어 밤새도록 지킨 주권으로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든 그 놀라운 기백을 충분히 칭찬하고 축하해도 된다. 색색의 응원봉과 경쾌한 노래에 맞춘 춤사위로 구름처럼 몰려들면서 국회를 지켜 두 시간 만에 계엄을 백지로 돌려버린 그 시민들을 온 세계가 놀라면서 응원하고 칭찬하는 것을 들으며 ‘우리는 축하받아도 돼,’ 할 때 또 얼마나 뿌듯한가? 아찔한 위험천만의 일이었으나 미련한 것들과 지혜 있고 슬기롭고 덕스러운 사람들을 확연히 갈라주는 이 거대한 사건을 참 교육으로 준 역사의 흐름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또 얼마나 고맙고 축하받을 일인가? 이렇게 하여 잘났다고 스스로 빠지고 우쭐대던 것들을 낚고 썩은 것으로 만들어 한물에 휩쓸어버린 신선하고 산뜻한 젊은 정신들의 나타남은 또 얼마나 고맙고 희망차서 축하할 일인가?

한밤이 어두운가? 색색의 응원봉으로 밝힌다. 무장한 군인들을 명령하는

힘이 무섭던가? 그들 사람 속 양심을 깨우는 아주머니의 외침과 노래와 춤과 만담과 해학이 아늑하고 안전한 자리로 만들지 않던가? 눈내리고 바람불고 영하로 내려가던 날들이 무척이나 춥던가? 수십 잔 수백 잔씩 미리 결제해준 따뜻한 맘으로 몸과 맘과 언 땅을 녹여 따뜻하게 밤새워 앓을 자리로 만들어주지 않던가? 잠시 맡겨 일하게 만든 권력 우리가 도로 돌려받겠다는 외침에 영원한 권력을 누리려는 어리석은 욕심덩어리들이 산산이 부서져 바람에 흩날려 한남동 구중궁궐 썩은 시궁창에 처박힐 때 권력의 무상함을 느껴 제 자리로 돌아올 위인은 어디에 있을까? 어딘가 몸뚱아리 다 드러내놓고 작은 대가리만 땅에 박고 안전하다고 느꼈 그 어리석은 자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깔끔하게 정리될 것은 시간문제가 아니던가? 이제는 새길을 닦자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걷는 발걸음을 축하할 일이 아닐까? 값비싸고 시간과 정력이 많이 드는 체포와 탄핵과 헌법재판 따위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겹손히 ‘이제는 자리를 내어 드립니다’ 하고 그가 제 발로 스스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먼지가루만큼이라도 용서받을 길이 거기에 있겠만, ‘제 무덤 제가 판다’는 옛말처럼 스스로 제 들어갈 구멍을 뚫으니 슬프긴 하지만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축하할 일인가? 비상계엄 소식을 듣던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맘은 있었으나, 나는 ‘제 무덤 제가 뚫구나’ 하면서 올 그날이 앞당겨졌다는 판단에 고마워했다.

장자(莊子)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작은 웅덩이에 물이 말라 거기 살던 두어 마리 물고기들이 서로 물거품을 내어 몸을 적셔주더라는 것이다. 햇볕이 내려 쪼이니 그 물거품이 얼마를 건디며 몸을 적셔줄까? 거대한 민중의 바다를 떠나 철조망과 높은 벽과 경호인력으로 둘러싸인 집에 갇혀 몇몇이 서로 물거품을 뿜어 몸을 적서주는 그 모습이 참 안스럽다. 정치가를 비롯하여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모두 거대한 민중의 바다에 몸을 담고 헤엄치며 사는 것이지, 메달라가는 물구덩이에서 호부작거리며 살 일은 아니다. 민중의 바다로 나온다면 넓은 품으로 받아주지 않을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마지막 물기가 마를 때까지 그렇게 거기 있겠지.

〈한남대 명예교수〉

※ 지면사정으로 전문을 실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본보 홈페이지(www.ggilbo.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설

대전·충남 행정 통합 과연 가능할 것인가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일부 기초단체장과 경제인, 학계 전문가 등 30명으로 ‘행정구역 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조만간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등 일정도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의지가 강하다. 이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통해 충청권 수부 도시로서 대전 대도시권 중심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지사 또한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 시·도간 행정 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은 그동안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충남이 통합된다면 인구 360만 명, 지역 내 총생산(GRDP)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에 이은 제 2위의 경제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가 연계된 대형 국책사업 및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정 통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출범한 ‘행정구역 통합 민·관협의체’에서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행정 통합을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당장 국가적으로 혼란한 탄핵 정국 속에서 대전·충남 행정 통합 문제가 정치권에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끌며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비상시국에서 과연 가능할 것이냐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행정 통합이 야당 다수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 정치 구도상 협력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여야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의견을 한데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시·도 주민들 간 통합에 대해 한 목소리만 낼 만큼의 충분한 의견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대전·충남의 통합이 성사되고 장기적으로 세종과 충북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광역 행정 통합이 이뤄진다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경제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지만 험로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대한민국, 이러다 망하는 거 아냐?

□ 김충남의 인생 메시지



인문학교육연구소장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이 나라의 총체적 난국, 이러다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냐,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함께 걱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사(人間事)는 영원한 행복, 불행이 없이 길흉화복의 운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지요. 국가사(國家事)도 영원한 흥성, 쇠퇴가 없이 흥망성쇠의 국운이 주기적으로 반복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흥성, 쇠퇴 운은 어떻게 변화해 왔고 이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우리 한민족 상고사(上古史)가 수록된 환단고기에 의하면 9000여 년의 우리 민족사 중 중국대륙까지 그 영토와 세력을 뻗었던 환국부터 발해까지의 약 7000년은 흥성의 시대, 그러다가 영토와 세력이 한반도로 축소된 조선왕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한국 전쟁까지가 쇠퇴의 시대, 그러니까 6.25한국 전쟁이 대한민국 쇠퇴 국운의 마침표라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쇠퇴의 국운에 이어 도래될 대한민국의 흥성 국운, 언제부터일까? 60, 70년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흥성 국운이 도래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60, 70년대 최빈국에 속했던 우리나라가 20여 년도 채 안 되는 기간 세계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함이 이를 말해주지 않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을 뛰어넘어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종주국이 될 수 있다는 가설(假說)을 펼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계지도를 보면 우리 한반도는 일본 열도와 아메리카대륙이 왼쪽에서 좌청룡이 되어 감싸주고 있고, 중국 대륙과 유럽대륙이 우백호가 되어 오른쪽에서 감싸주고 있으니 우리 한반도 자리는 좌청룡 우백호에 둘러싸인 명당자리인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축이 되어 세계의 기운을 이끌 수 있는

지형이라는 것이지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예언이 있지요. ‘3.8木이 부러지는 날 세상의 운로(運路)가 바뀌리라.’ 이 말은 3.8선이 무너져 남북통일이 되면 세계의 운이 바뀐다는 뜻, 언젠가 남북통일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 수준을 넘어 세계 종주국 수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는 동북방(東北方)에 위치하고 있지요. 이를 역(易)에서는 간(艮) 방향이라고 하지요. 간(艮)은 핵, 열매, 씨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땅은 핵(核)의 영험한 기운을 지니고 있지요. 따라서 영험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 철학, 문화, 문명 등 정신문화가 앞으로 세계 정신문화의 핵이 될 수 있고 영험한 기운을 지닌 우리의 인재들이 세계를 주름잡게 된다는 것이지요. 88올림픽 이후 한류열풍(한민족 문화 열풍)과 우리의 인재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양(大洋)을 통한 세계사의 흐름을 볼까요. 고대에는 그리스, 로마가 주축이 된 지중해 시대, 중세에는 포르투갈, 스페인이 주축이 된 대서양시대로 흘러왔으니 이제는 21세기 태평양 시대가 되겠지요. 대양 시대의 주축이 된 그리스, 로마, 포르투갈, 스페인 모두가 반도 국가였지요. 우리 한반도는 태평양의 유일한 반도국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태평양 시대의 주축이 될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에 세계 종주국이 될 수 있다는 예지가도 여러 명 있지요. 원효대사의 비결서, 남사고의 격암유록, 제3의 역(易)이라 할 수 있는 정역(正易)을 쓰신 김일부, 후천개벽을 예언한 강증산, 탄허 스님 등 그리고 외국의 예언가들도 여러 명 있지요. 그렇다면 어느 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국운이 급상승할 수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통일의 그 시점부터라고 추론할 수 있지요.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자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만, 얼마나 공감하실지? 픽션이라고 치부하실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에 처한 이 총체적 난국은 흥성 국운의 대로(大路)에 놓여진 돌멩이일 뿐, 하늘이 내려주신 구국의 지도자에 의해 치워질 것, 따라서 지금의 난국,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금강일보

www.ggilbo.com

회장 김용찬 발행·편집인 김장식 인쇄인 박창희 주필 이인회 편집국장 이기준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23 대우토피아 8층 (우)35229

·편집부 (070) 7844-7731 ·취재1부 (070) 7844-7723 ·취재2부 (070) 7844-7716

·구 독 안 내 (070) 7844-7711 ·광고문의 (070) 7844-7706~7

2010년 5월 3일 창간 / 등록번호 대전 가00021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만 5000원 / 1부 800원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opinion@ggilbo.com>